

기후재난·비인간의 삶, 음악으로 보듬는다



‘달복’ 양세진 활동가

지구 위 모든 생명 위해 같이 걸어볼까요
“일상의 관심이 기후 대응 실천의 시작점”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동물권·기후활동가 ‘달복(양세진)’입니다. ‘달복’이라는 활동명은 ‘달달한 복숭아’라는 친근한 의미와 보름달처럼 밝고 복을 가져다주는 ‘달’이 복덩이’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음악과 콘텐츠라는 친숙한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현재 저는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가입니다. 동물권 영역에서는 ‘광주비건탐식단’의 모래알요원으로 참여해 지역의 비건 식당과 문화를 알리는 ‘열점비건’ 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적·사회적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음악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의 시선을 넘어 ‘비인간’ 존재들의 목소리와 생명 가치를 음악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19 광주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합류해 9월 19일 진행될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에서는 기후위기 속 비인간 존재들의 목소리도 함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광주 차원의 ‘동물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덩이 복덩이, 세상에 띄운 노래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꾸준히 이야기해 오셨는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평소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생활 습관이나 원칙도 함께 들려주세요.

△탐블러나 다화용기 사용, 분리배출, 채식과 비건 지향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은 다양합니다. 저는 여기에 작은 노력을 하나 더해 ‘기후·환경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지역의 관련 뉴스를 꾸준히 찾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전히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이나 환경파괴 현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모든 실천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제 안의 자기모순과 싸우며 가능한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행동을 완벽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꾸준히 눈여겨보는 관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년 7월, 제가 살고 있는 신안교 일대에는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 전체가 제 어깨선까지 차오를 정도로 잠겼고, 그 상



태가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참사로 물살에 휩쓸린 동네의 80대 어르신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동네에 7년을 살았으면서도 그분들이 누구였는지조차 몰랐다는 자책감과, 기후활동가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내 집 앞까지 닥친 기후재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물려왔습니다. 그 깊은 애도와 나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동네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작년 9월 기후정의행진 무대에서 불렀습니다.

기후재난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웃의 일상을 앗아가는 현실입니다.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참사의 슬픔이 더 이상 개인만의 짐으로 남지 않기를, 우리 지역과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일자리, 수당 등

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후활동가이자 한 개인으로서 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약자와 청년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와 ‘비인간 존재까지 아우르는 생태적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과 취약계층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삶의 불안은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지자체와 국가가 예측·대비·보상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및 기본권 보장 조례·법안’이 촘촘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기틀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서로 품어주는 돌봄의 안전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기후·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 여성, 장애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 가정에서 태어나 주말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돌봄청년’으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상을 꾸려가는 매 순간 이 돌봄의 조건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돌보는 일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은, 더 견고하고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봄과 기후재난의 무게가 특정 개인에게만 전가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거대하고 딱딱한 담론으로만 남지 않도록, 제가 가진 가장 친숙한 무기인 음악과 콘텐츠로 풀어내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에 더 쉽고 따뜻하게 와닿을 수 있는 문화적 시도와 작업들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개인적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삶이 생각보다 깊고 지남에서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은 괴로움이나 불안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날이 오더라고요. 때로는 거창한 거대 담론보다 아주 자질구레한 희망이나 소소한 웃음거리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도, 각자의 삶에 놓인 무거운 짐이든 우리는 종일 끌어오르는 이 행성 위에서 저마다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뒤섞이고 희미해져도 ‘뭐 어때’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날도 꼭 찾아올 테니까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다정하게 알아채며, 살 수 있는 날의 끄트머리까지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또 봐요!

신سل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광주시민, 탄핵 집회 위해 서울행

탄핵집회 방송 인터뷰 모습.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